

KDI 내년 한국경제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이미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하향 제시했다. 경상수지의 경우 199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 둔화,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성장률 4.3% 물가 더 오르고 경상수지 적자



“경기 이미 둔화...북핵 악화 등 변수 없는한 부양책은 불필요”

KDI는 그러나 북한 핵 사태의 급격한 악화 등 돌발 변수가 없는 경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7일 발표한 '3·4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GDP 성장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용한 전망치(4.6%)보다는 삼성경제연구소(4.3%) 등 4% 초반을 예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KDI는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 지체로 인해 소비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KDI는 지난 7월에 5.1%를 전망했으나 민간소비 증

가율은 4.5%에서 4.1%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0.8%에서 마이너스 0.8%로 변경하면서 이번엔 0.1%포인트를 낮췄다.

특히 KDI는 경상수지가 올해 27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14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치가 맞다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KDI는 이와 관련, 2004년 이후 진행돼 온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상당 부분 환율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흑자가 누적돼온 만큼 균형수준에 근접한 소폭의 적자가 경제안정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GDP 성장세는 둔화하겠지만 유가하락 등으로 GDI 증가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순환기에 비해 급격한 경기위축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현시점에서 거시 경제정책 기초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순환 문제에 인위적인 경기 부

양책으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만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003년 이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정도에 머물면서 성장잠재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효율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서비스업 구조조정, 교육과 연구 개혁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향후 추경 등으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하며 통화정책은 현행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새로 설정된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은 200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에 있는 최근 가계신용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용협동기구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통해 2012년부터 연간 700만t 도입

오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도입물량의 3분의 1 가량이 700만t의 가스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한명숙 총리와 미하일 프라도코프 러시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과 마테로프(Materov)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이 한·러 가스산업 협력협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2년여간 걸쳐 진행됐던 한·러 가스협력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협력체결로 양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액화천연가스(LNG) 및 압축천연가스(PNG) 관련 인프라 건설, 가스관련 기반시설 건설 및 개·보수, 가스전 시굴 및 탐사,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2012년부터 연간 700만t에 이르는 가스를 이르투르크 또는 사할린 가스전 등으로부터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용 정보사들 작년 한해 주민번호 5,300만건 조회 올 상반기에도 3,465만건 '남발'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이나 휴면예금·보통예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조회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자료 이용건수가 6천20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주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이용건수가 5천300여만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이 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금융기관이 이용한 행정부 주민등록자료는 6천221만2천736건이었다.

이 중 신용정보사가 이용한 건수는 5천338만7천894건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했으며 신용정보사는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3천465만2천433건을 조회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를 심사 후 행정부에 넘기며 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락하는 과정을 거쳐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감위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도 금감위의 요청을 받은 뒤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자료조회를 허가한다는 게 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05년 전체 인구가 4천800만명 정도인 상황에서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가 인구보다 많았다는 것은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이후 조회된 자료들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상상력, 경영에 접목하라”

‘남이섬’ 강우현사장 경영자 조찬강연

“상상력에 따라 기업 운명이 좌우됩니다. 경영에 상상을 접목하세요”

‘남이섬’의 강우현 사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협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협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백지상상”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사장은 상상력이 창의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구성원의 상상력 수준에 따라 가정·회사·국가의 미래운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면서 무역업계의 CEO들에게도 기업경영에 상상을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강 사장은 53년생으로 흥덕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광고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2001년 남이섬 대표이사에게 취임하기전까지 일러스트레이터, 기업이미지 디자인, 캐릭터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그는 남이섬의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후 과감한 경영혁신과 환경경영을 통해 남이섬을 먹고 마시는 유원지에서 문화예술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취임 5년만인 지난해 관광객수를 2001년 27만 5천명에서 167만명으로 6배 이상, 매출을 100억원으로 5배이상 증가시킨 것이다.

남이섬을 처음 맡았을 때 손님도 돈도 없었지만 수많은 손님들로 혼잡한 숲길 여기저기서 외국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별이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다고 강 사장은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현대·기아차는 고객지향 활동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초로 애프터서비스의 개념을 탈바꿈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도입, 오는 21일부터 전국 70여개 지역에서 무상점검 서비스 및 오너 정비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무상점검팀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核’ 2차징후에 증시 한때 출렁

코스피·코스닥 소폭 조정...원·엔환율 801원 마감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17일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였지만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날 주식시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소식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4일과 6일만에 소폭 조정을 받았다.

상승출발한 코스피지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이 불거짐에 따라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 전일대비 5.42포인트(0.40%) 떨어진 1,351.30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86포인트(0.66%) 오른 585.90으로 출발한뒤 566선까지 급락했다가 개인과 기관의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5.01포인트(0.86%) 내린 577.03으로 마감했다.

전날(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재차 부각된 북핵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들

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졌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125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39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10원 하락한 954.4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원·엔 환

율은 북핵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100엔당 801.36원으로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1차 핵실험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시장 내성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핵실험 때는 1차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작년말 國富 5,201조원

과세대상 자산가치 추정

토지와 주택·건물·주식·금융저축 등 과세대상 자산의 가치를 모두 합한 ‘국부’의 크기는 지난 1997년 이후 9년간 2배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오윤·박훈·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3호에 실린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논문에서 지난 1997~2005년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치의 변화를 추정해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인 토지와 주택, 상업용건물, 주식, 금융저축

등의 자산의 총합을 국부로 정의한 뒤 실제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변수를 활용해 국부의 변화를 파악했다.

대응변수로는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주택은 건교부 및 통계청의 주택수와 가격지수가 사용됐고 상업건물은 재정부의 재산세 과표를 이용했다. 이밖에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주식과 금융저축 자산의 변화는 재정부의 재정금융통계계를 이용해 추산했다.

분석결과 지난 1997년 말 2천600조원이었던 우리나라의 전체 국부는 2005년 말 현재 5천201조원으로 100% 증가했다. /연합뉴스

住公 부채 2015년엔 70조원

중장기 재무자료 전망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주택공사의 부채가 2015년 70조원에 이르러 경영부실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이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은 작년말 기준 22조원인 부채가 올해 36조5천640억원, 2011년 51조7천500억원, 2013년 62조5천370억원, 2015년 69조2천24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공공이 작년 실적과 정부지원 기준 등을 기초로 지난 4월 작성

한 ‘중장기 재무전망’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9조6천590억원인 자본금을 내년 11조4천570억원, 2010년 16조4천170억원, 2015년 22조5천160억원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은 현재 200%대(작년 237%)에서 2015년 306%로 높아진다.

공공의 이같은 부채증가는 지자체의 평형 확대요구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평형이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17.8%보다 1.9% 넓은 19.7%으로 지어지는데다 자가상승, 건설기준 강화 등으로 건설단가도 건교부의 기준(평당 364만원)보다 130만원 가량 많은 494만원에 이르게 때문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텔레서비스	하나로텔레콤 광주고객센터 계약직 상담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8	02-2163-4125
태정산업	제품검수 및 품질관리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10/20	062-953-2300
사이넬	병원 영입 및 관리지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62-652-7418
포도애셋 광주지점	2006년 5기 재무상담사 채용	대졸/경력무관	2800~3000	10/21	062-373-7100
동화약품공업	사무직 정규지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2-778-4331
대평건설	[관리/영업/자재/경리] 정규직 지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268-8382
신성하이텍	가공기술/CNC선반/VMCT/3차원측정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952-1441
서울LEASE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3	062-369-0790
현보하이텍	경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10-2332-3607
호텔 프라도	프라도 호텔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6	062-654-9999
금강플랜트	사무 일반관리 및 공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6	061-393-0815
빅스포 휘트니스 센터	빅스포 휘트니스 센터 직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6	011-9212-9510
지비지인내세날	무역사무,통역번역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2-352-2030
광주인타임스	사출성형기 운전 신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7	062-944-01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